



## 노인의 경제적 수준 결정요인: 성별, 연령, 교육 수준을 중심으로\*

이상봉

연세대학교 고령화융합연구센터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주관적 및 객관적 경제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National Survey of Older Persons)」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방법은 노인의 성별, 연령, 교육 수준이 주관적 경제 수준과 객관적 경제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과 상호작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노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경제 수준은 매우 부정적이다. 둘째, 노인의 경제 수준은 개별 집단에 따라 '차별성(differentiation)'이 존재한다. 셋째, 향후 성별, 연령, 교육 수준에 따른 노인의 경제 수준(특히, 객관적 경제 수준) 격차가 유지 및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속성(sustainability)'이 존재한다. 결국, 위와 같은 연구의 논의를 통해 노인의 경제적 수준의 특징은 '차별성'과 '지속성'으로 요약된다.

[주제어: 노인, 소득, 자산]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 S1A3A2067165)

##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주관적 및 객관적 경제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총인구 중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14%를 넘어섬에 따라 OECD에서 규정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였다. 의료기술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기대수명의 연장은 노인 개인의 물질적·정신적 경험의 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신체적 요인, 심리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 관계적 요인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경제적 안정은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조건일 뿐만 아니라 상위욕구 충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정경희, 2013). 즉, 노년기에 있어 경제적 안정은 의식주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노인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노인의 지위와 자아를 유지시켜 노인의 생활만족에 기여하므로 경제적 상태와 노년기의 생활만족도간에 높은 관계가 있다(김영순 외 2002).

노인의 경제적 삶은 주관적 경제 수준(subjective economic level)과 객관적 경제 수준(objective economic level)으로 구분될 수 있다. 주관적 경제 수준은 본인이 주체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삶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고, 객관적 경제 수준은 소득(income), 자산(asset), 부(net worth) 등과 같이 물질적, 객관적, 화폐 환원적인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sup>1)</sup>의 수준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 수준은 어떠한가? 소득을 통해 노인의 객관적 경제 수준을 파악해 보면, 노인의 상대소득빈곤율은 매우 높은 수준(49.6%: 2015년도 OECD 기준)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인구를 모집단으로 할 때 노인집단의 가처분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원인을 소득원천에서 분석하면, 대부분 OECD 국가 노인의 소득원천이 ‘근로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2:8:0’의 모습을 보이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3:4:3의 모습을 보

1) 본 연구에서 객관적 경제 수준은 주관적 경제 수준과 대별되며, 소득이나 자산과 같은 경제적 가치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양자는 혼용하여 사용한다.

이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sup>2)</sup> 노인의 객관적 경제 수준을 보여주는 또 다른 경제적 가치인 자산(asset)의 경우에도 노인의 상대자산빈곤율은 31.5%(전체 인구는 25.3%)로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이러한 세 가지의 경제 수준(주관적 경제 수준, 소득, 자산)은 반드시 서로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주관적 경제 수준과 객관적 경제 수준은 상호간에 충분조건이 아니며, 이러한 점은 객관적 경제 수준인 소득과 자산의 상호간에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유형의 경제 수준은 노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노인의 경제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 수준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활동참여 유무, 정규/비정규직, 종사상 지위와 같은 노동시장 특성, 배우자 유무, 자녀와의 동거, 가구원 수와 같은 가구구성 특성 등이 있다. 아래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겠지만, 대체로 남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도시에 거주할수록, 자녀와 동거하고, 배우자가 있으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노인의 경제 수준이 높다고 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경제 수준이 사회인구적 특성들 사이의 조응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된다는 것이다. 즉, 위의 변수들이 경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다르며, 변수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에 따른 영향력에도 차별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노인의 경제 수준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별변수의 영향력과 더불어 상호작용효과도 함께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결국,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노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경제 수준(본 연구에서 주관적 경제 수준으로 칭함), 노인이 소유한 경제적 가치(본 연구에서 주관적 경제 수준으로 칭함)인 소득과 자산은 어느 정도인가? 이러한 경제 수준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구적 변수는 무엇이며, 이러한 변수의 경제 수준 영향력에는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존재한다면 어떠한 변인들의 상호작용이 경제 수준에 영향을 주는가?이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2)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미성숙한 노후소득보장제도,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세대 간 노후에 대한 인식 격차 및 변화 등이 있다. 높은 노인 빈곤율에 대응하기 위해 2000년대 들어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 차원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이상봉, 2018).

## II. 이론적 논의

### 1. 노인의 경제 수준

브리즈·윌킨슨·플래처(Breeze, Wilkinson, and Fletcher, 2004)는 주관적 경제 수준 지표를 이용한 연구에서 노인이 주관적 경제 수준이 높다고 느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노인의 주관적 경제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사회조사 2017」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소득만족도는 ‘만족’ 9.2%, ‘보통’ 38.2%, ‘불만족’ 52.7%로써 비교 연령대 중에서 ‘만족’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16 고령화연구패널」에서도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 ‘중의 하’ 35.3%, ‘하의 상’ 25.5%, ‘중의 상’ 20.1%이라고 응답한 반면, ‘상의 상’은 0.7%, ‘하의 하’는 15.8%가 응답하였다. 그러나 다른 설문조사인 「한국인의 사회적 삶, 건강과 노화에 대한 조사(KSHAP)」<sup>3)</sup>에서는 주관적 경제 수준에 대한 설문항목인 ‘현재 어르신의 경제적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여유있음’ 6.6%, ‘보통임’ 64.1%, ‘조금 어려움’ 22.6%, ‘매우 어려움’ 6.8%의 모습을 보였다. 즉, 자신의 경제 수준을 중간 정도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사 대상과 조사 시기에 따라 주관적 경제 수준이 다양하게 표출됨을 알 수 있다.

노인이 소유한 객관적 경제 수준 중에서 소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이며, 분석 시기는 본 연구와 동일한 시기인 2014년 및 최근 발표된 2018년 자료이다. 2014년 기준으로 노인이 소유한 모든 유형의 경제적 가치는 2018년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의 노인 가구의 평균가구소득은 1,360만원이고, 근로소득 평균은 168만원이며, 가구주 60세 이상의 평균가구소득은 2,718만원이고 근로소득 평균은 1,058만원이다. 「2018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의 노인가구의 평균가구소득은 2,055만원이고, 근로소득 평균은 366만원이며, 가구주 60세 이상의 평균가구소득은 3,758만원이고 근로소득 평균은 1,533만원이다. 60대 이상의 가구주가 기준선일 경우에는 61세 이상~65세 미만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상대적

3) KSHAP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Lee et al.(2014)와 Youm et al.(2014)를 참조하시오.

으로 높으므로 65세 이상의 노인가구에 비해 소득이 높게 형성되었다. 자산의 측면을 보면,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60세 이상 가구주 기준으로 ‘순자산(29,287만원)·실물자산(27,724만원)·금융자산(5,936만원)·부채(4,372)만원’의 모습이고, 「2018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순자산(35,871만원)·실물자산(33,525만원)·금융자산(7,678만원)·부채(5,385)만원’의 모습이다. 즉, 노인집단의 자산 소유의 모습은 ‘순자산·실물자산·금융자산·부채’의 순서이다.

〈표 1〉 노인의 소득 및 자산보유액

연도	평균가구소득	평균근로소득	실물자산	금융자산	부채	순자산
2014	2,718 (1,360)	1,058 (168)	27,724	5,936	4,372	29,287
2018	3,758 (2,055)	1,533 (366)	33,525	7,678	5,385	35,871

‘주’: 가구주 60대 이상이 대상이며, ( )은 노인가구 대상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4, 2018

노인의 소득에 대한 대표적 연구물은 다음과 같다. 손병돈(2009)은 1999년 이후 노인소득의 불평등 변화에 근로소득이 기여분이 가장 크지만 감소하는 추세이고, 부동산소득과 사회보험소득의 영향은 확대되는 추이를 보인다고 한다. 황선재·김정식(2013)은 65세 이상 노인집단의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노년기 소득불평등 분해 분석한 결과, 노년층 소득의 대부분은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으로 구성되며, 과거 노동시장 경력에 따라 공적연금에의 차별적 접근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적연금은 오히려 노동 생애과정에서의 불평등을 노년기에 연장,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고 한다. 김복순(2014)은 노인 인구 내부의 소득불평등 정도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10분위별 최하소득층의 소득점유율은 감소하지만, 최고소득층의 소득점유율은 증가하고 있고, 두 소득층 간에 소득 10분위배율이 확대되고 있어 65세 이상 연령층 안에서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소득분배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용재(2016)는 노인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분석에서 전체소득 gini계수는 0.44인데 반하여 가구소득은 0.18수준이라고 한다. 박경숙·김미선(2016)은 노인 소득 상대빈곤율 변화에 노인 1인 가

구 및 노인 부부 가구 증가,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의 감소와 같은 노인가구 형태의 변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한다.

다음에서는 경제적 삶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산을 검토한다. 자산은 소득과 더불어 노인의 경제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변수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소득(유입단계), 금융자산(축적단계), 비금융자산(구축단계)으로 파악할 때, 비노인은 경제활동으로 획득한 소득을 금융자산으로 축적하는 단계인 데 반하여, 노인은 소득의 유입보다는 마지막 단계인 비금융자산의 구축단계에 머문다고 볼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자산의 역할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면, 경제학의 '부의 효과이론(effects of net worth)'과 사회복지학에서의 '자산효과이론(welfare effects of assets)'을 제시할 수 있다. 부의 효과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울프(Wolff, 1998)와 데이비스(Davies, 2008)에 따르면 부는 은퇴 후의 소비 능력 제공, 실업이나 질병 등의 예상하지 못한 사건에 대한 완충, 투자 자원, 기업 활동이나 주택 구입 시의 차입 등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면, 부의 기능은 ①소유자에게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②소비의 잠재적 원천이며, ③유동성 제공하고, ④권력의 분배도 관련되어 있다. 이것을 소득과 비교하면, ①과 ②는 가처분소득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에, ③과 ④는 경제 계급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자산효과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쉐라덴(Sherraden, 1991)에 따르면, 가구 복지의 개념화에 소득 기반의 소비 지향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자산 축적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자산 기반 복지 이론에 따르면 저축, 주식 및 재산과 같은 축적된 부를 통해 더 넓은 복지 혜택이 제공되고 빈곤으로부터 가계가 탈피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산의 효과는 경제적 안정성, 심리적 안정감, 타 유형의 자산으로 확산, 기술 및 전문성 제고, 위험 회피, 개인 효능감, 사회적 영향력과 정치참여, 세대간 복지향상의 기능을 한다. 즉, 소득이 소비를 지원하는 반면, 자산은 심리적 관점, 행동 양태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중장년기에 축적된 자산이 은퇴 이후의 노년기에 소비의 원천이 되고, 자산은 점차 감소한다는 생애주기가설(the life-cycle hypothesis)로 연결된다(Modigliani, 1986; Sherraden 1991).

노인의 자산에 대한 대표적 연구물은 다음과 같다. 심영(2010)은 「한국복지

패널조사」를 사용하여 가구 유형에 따른 노인가구의 자산 차이를 분석하였다. 주택자산 비중은 여성 노인가구가 남성 노인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부동산자산 및 순자산 비중은 부부 노인가구가 남성 노인가구와 여성 노인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김연정(1998)은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가구가 소유한 자산에서 실물자산이 총자산 대부분을 구성하였고, 금융자산의 비중은 경상소득으로 환원이 용이한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한다. 그 밖에 노인의 자산과 관계된 연구에는 자산과 우울 관계(강시운·한창근, 2017; 김자영·한창근, 2017), 노인의 자산과 주관적 건강상태 관계(이숙현·한창근, 2017), 노인의 자산과 노인의 삶 만족의 관계(신용석·원도연·노재현, 2017) 등에 대한 논의가 있으며, 양자의 관계는 양적 관계임을 확인하였다.

## 2. 노인의 경제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

다음에서는 주관적 경제 수준, 소득, 자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하여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노인빈곤을 포함하는 노인의 소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대체로 다차원적인 연구(정해식·김수완·안상훈, 2014; 김수영·박병현, 2018; 김순미, 2018)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사회경제학적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사회경제학적 요인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인구학적 특성, 심리적 특성, 신체적 특성, 사회관계망 특성, 노동시장 특성 등이 있다. 특히,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교육 수준, 배우자유무, 경제활동유무, 거주지역 등은 대부분의 양적 분석을 통해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 특성은 통제변수 혹은 독립변수로 설정된다. 대표적인 노인 관련 연구의 주제는 우울(권오균·허준수, 2013; 이현주·엄명용, 2014), 생활만족도(허성희·정명희, 2017; 이래혁·이재경, 2018)과 같은 심리적 특성이나, 만성질환(정현선·김옥수, 2013), 건강상태(신경림·김정선·김진영, 2005; 김진구, 2012; 김진영·송이은, 2014) 등의 신체적 특성, 여가생활(곽효문, 2002), 자원봉사(이현기, 2010), 네트워크분석을 통한 사회관계망 분석(박영란·박경순, 2013; 최선미, 2017) 등이 있으며 이들 변수는 주로 종속변수로 사용된다.

기존연구에서 분석된 사회경제적 특성 관련 변수는 다음과 같다. 이원진

(2012)은 노인의 소득불평등을 분석하면서 인구학적 특성, 노동시장 특성, 가구 구성 특성, 공적·사적이전 특성으로 구분하였고, 황선재·김정식(2013)은 사회인구학적 변수로 연령, 성, 교육수준, 혼인상태, 거주지를 사용하였다. 신용석·원도연·노재현(2017)은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을 사용하였고, 김자영·한창근(2015)은 성, 연령, 종교, 교육수준, 취업여부, 건강상태, 가구형태, 가구주여부, 가구총소득, 부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강시운·한창근(2017)은 통제변수로 성별, 연령, 주거지역, 교육수준, 종교, 혼인상태, 건강상태, 근로여부, 가구총소득으로, 이숙현·한창근(2017)은 성별, 교육수준, 학력, 배우자유무, 거주지역, 경제활동유무로, 심영(2010)은 총자산, 교육, 경제활동유무, 주택유형, 연령, 소득계층, 가구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노인 경제 수준의 결정요인에 대한 통제변수 혹은 독립변수로 성별, 연령, 교육 수준을 설정함이 확인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세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경제 수준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다.

성별에 대한 연구를 검토한다. 석재은·임정기(2007)는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소득수준 격차를 분석한 결과, 여성노인의 평균소득은 남성노인 평균소득의 37.5% 수준이며, 사회인구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여성노인이라는 특성이 총 소득수준 및 소득원별 소득 수준에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한다. 김혜연(2017)은 공적연금이 여성보다는 남성의 빈곤지위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 비해, 기초연금은 여성의 빈곤지위 향상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한다.

연령에 대한 연구를 본다. 이원진(2012)은 고령노인의 경우 저령노인에 비해 근로를 지속하기 어렵고 중장년기에 축적해둔 자원을 소진할 확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윤석명(2013)은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분석에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 포함가구,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서 빈곤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즉, 노인 포함가구의 빈곤율은 43.5%(65-74세), 47.2%(65세 이상), 54%(75세 이상)이고,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서는 각각 60.9%, 66.0%, 74.7%이다. 윤종민(20118)은 연령효과로 인하여 연령이 50세 초반일 때 소득이 정점에 도달하였고 연령이 많을수록 소득 분배지표가 상승하였다고 한다.

교육 수준에 대한 연구를 본다. 정경희(2015)는 교육 수준이 높은 노인에게



서 공적연금 급여를 받는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교육 수준과  $\cap$ 의 관계를 보여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력을 가진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한다. 크리스털 등(Crystal et al., 1992; 이원진, 2012 재인용)은 노인의 경우 근로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으므로 교육 수준으로 대표되는 인적자본이 현재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관계가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생애 초반에 획득된 교육 수준이 중장년기의 노동경력을 매개로 하여 저축, 부동산, 연금 등의 형태로 전환되어 노년기의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 3.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경제 수준과 관련된 연구는 자료 획득의 용이성 및 자료의 신뢰성을 중시하여 주로 객관적 소득수준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비슷한 경제적 수준이라도 주관적 경제 수준이 상이할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이상봉,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경제 수준뿐만 아니라 주관적 경제 수준도 분석한다. 둘째, 최근 부(net worth) 혹은 자산(assets) 관련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지만, 데이터 및 변수 조작 방법에 관한 탐구<sup>4)</sup>가 부족하며, 자산 관련 연구결과물도 초기의 축적단계로 파악된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연구 상황에서도 비슷하다. 그러나 경제적 가치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는 자산 분석은 노인의 경제적 수준을 파악함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경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경제적 가치에 소득과 자산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객관적 경제 수준에 관한 기존 연구는 종단 및 횡단 자료를 이용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경제 수준은 사회경제적 배경들 간의 조응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분석과 더불어 상호작용분석을 실시한다.

4) 부(net worth)나 자산(asset)의 정의, 기능, 확대 및 응축 기제, 통계 조작시 유의할 점 등에 대해서는 이상봉(2011)을 참조하시오.

### Ⅲ. 연구방법

#### 1. 연구 자료 및 표본 특성

본 연구는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National Survey of Older Persons: NSOP 2014)」 자료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산을 포함한 객관적 경제 수준을 분석하므로 자산의 구성요소인 비금융자산, 금융자산, 부채 항목이 필요하다. 자산항목 조사에 특화된 패널조사인 「가계금융복지조사」에는 실물자산, 금융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의 설문항목이 있지만, 주관적 경제 수준 및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의 항목이 부재하다는 단점이 있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와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경우 자산 관련 항목이 존재하지만, 경제활동 표본 탈락의 편의성과 노인 사례수의 부족<sup>5)</sup>이라는 단점이 있다. 현재 사용 가능한 NSOP의 최근 자료는 2018년 배포된 「NSOP 2017」이지만, 설문항목에 주관적 경제 수준이 없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가용한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NSOP 2014」 자료를 분석한다. 조사대상자는 2014년 현재 전국 16개 시도의 일반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노인<sup>6)</sup>이다. 연구 대상자는 10,451명이다.

#### 2. 변수 선정 및 연구 방법

종속변수는 주관적 경제 수준과 객관적 경제 수준이다. 주관적 경제 수준은 “귀택의 생활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5점 리커트 척도인 매우 낮다(1), 낮은 편이다(2), 그저 그렇다(3), 높은 편이다(4), 높다(5)로 구성된다. 객관적 경제 수준은 소득과 자산 자료를 이용한다. 「NSOP 2014」의 본인 연

5) 2016년 기준 6차년도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의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61.2%이고(신종각 등, 2017), 2014년 기준 17차년도 노동패널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14.6%(가중치 부여 후)이다(홍민기 등, 2015).

6) 조사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이므로 가구주(householder) 조사 자료 분석시 필요한 가구균등화지수를 통해 노인 개인소득을 산출하거나 분석자료에서 특정 범주노인을 추출하는 방식보다는 분석에 특화된 객관적 경제 수준을 분석할 수 있다.

수입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개인소득, 퇴직연금, 주택연금/농지연금,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기타공적급여), 기타소득을 포함한 지난 1년간 수입의 합계로써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세후소득이다. 「NSOP 2014」의 개인 소득의 원천은 12개<sup>7)</sup>이며, 본 연구의 소득 관련 분석 변수는 근로소득, 총소득이다. 근로소득의 경우 우리나라 노인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경제활동 참여율을 보이고, 소득 원천 구성에서도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변수로 선정한다. 「NSOP 2014」의 자산은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부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산액 및 부채액의 측정 기준은 조사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의 자산 관련 분석 변수는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부채로 한다. 기타자산은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사례수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제외<sup>8)</sup>한다. 순자산 항목은 조사 항목에 없으므로 '부동산자산+금융자산+기타자산-부채'로 산출한다.<sup>9)</sup> 객관적 경제 수준의 분석 단위를 개인 또는 가구에 따라 결과물이 다르게 나타난다. 본 연구 자료에서 자산 변수는 가구 단위로 측정되었기에 소득 변수 중에서 가구 단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함께 제시한다. 결국, 본 연구에서의 분석하는 소

7) 「NSOP 2014」의 소득 및 자산에 대한 구성 및 기술통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정책보고서를 참조하시오.

8) 자산의 범위 선정은 연구목적과 연구자료에 따라 다양하다. 강시온·한창근(2017)과 신용석·원도연·노재현(2017)은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또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사용하여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한 총자산에서 금융기관 대출금, 사적 부채, 채무보증금, 기타부채를 합한 가구 총부채를 뺀 금액을 순자산으로 설정하였다. 김자영·한창근(2015)은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본인의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의 합산한 금액을 분석하였고, 심영(2010)은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사용하여, 총자산, 순자산, 총부채로 구분하였다.

9) 부 또는 자산을 다루는 연구에서의 순자산(net worth) 산출은 음수의 존재로 인하여 통계 작업시에 주의가 필요하다(이상봉, 2011). 본 연구에서 본인 단위와 가구 단위에서 각각 222개, 269개의 음수가 존재하며 로그함수로 변환할 경우 case 손실이 발생한다. 전체 표본에서 음수값을 나타내는 case는 2% 수준이지만 이들 집단이 노인의 최하층의 자산 소유 집단이므로 유의미한 집단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순자산의 최저값이 '0'이 되도록 변환한 후 로그함수로 변환하여 분석한다. 그러나 순자산을 로그함수로 변환하여 분석한 기존연구인, 김자영·한창근(2015), 강시온·한창근(2017), 신용석·원도연·노재현(2017), 이숙현·한창근(2017)의 연구에서는 음수의 빈도 및 결측치 변환 빈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 한계가 있다.

득 측면에서의 경제적 가치는 본인 근로소득, 본인 총소득, 가구 총소득이고, 자산 측면에서의 경제적 가치는 본인과 가구의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부채, 순자산이다. 소득과 자산의 응답 항목에 무응답(8 또는 999998) 또는 비해당(9 또는 999999)인 경우에는 결측치(.)로 처리하며 로그함수로 변환하여 분석한다.

독립변수는 성별, 연령, 교육 수준이다. 성별은 남성(1), 여성(2)으로 구분되고, 연령은 65-69세(1), 70-74세(2), 75-79세(3), 80세 이상(4)로 구성된다. 교육 수준은 무학(1), 초등학교졸업(2), 중학교졸업(3), 고등학교졸업(4), 전문대이상(5)으로 구성된다.

통제변수는 배우자유무, 경제활동여부, 거주지역이다. 배우자 유무(「NSOP 2014」의 변수명은 ‘혼인상태’임)는 무배우자(1), 유배우자(2)이며, 무배우자에는 사별, 이혼, 별거, 미혼을 포함한다. 경제활동유무(「NSOP 2014」의 변수명은 ‘취업여부’임)는 아니오(1), 예(2)이고, 거주지역은 동부(1), 읍면부(2)로 구성된다.

연구방법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관적 경제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한다. 그리고 노인의 경제 수준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과 상호작용분석(regression analysis with interactions)을 실시한다. 이때 다중공선성 문제는 각 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의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로 판단한다.

## IV. 연구결과

### 1. 기술통계분석

다음의 <표 2>는 연구 대상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이다. ‘여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59%), 연령은 ‘8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한다. 교육수준은 ‘무학’(33%)과 ‘초졸이하’(33%)의 비중이 높고, ‘전문대이상’(6.42%)의 집단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무배우자’(62%) 및 ‘비경제활동’(68%)의 비중이 높고(62%), ‘읍면부’보다는 ‘동부’에 거주하는 비중(67%)이 높다.

〈표 2〉 범주화 변수 특성 단위(%)

n=10,451		빈도	비율
성별	남	4,282	40.97
연령	65-69	2,804	26.83
	70-74	3,158	30.22
	75-79	2,500	23.92
	80 이상	1,989	19.03
교육수준	무학	3,469	33.19
	초졸이하	3,468	33.18
	중졸이하	1,340	12.82
	고졸이하	1,503	14.38
	전문대이상	671	6.42
배우자유무	유	3,975	38.03
경제활동유무	유	3,299	31.57
거주지역	읍면	3,446	32.97

‘주’ 1: 설문 답변 중 비교 대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함. 예를 들면 성별에서 남성만 제시함.

‘주’ 2: 비율은 결측치를 제외한 유효 퍼센트로 산출함. 합계 100%임.

주관적 경제 수준을 〈표 3〉을 통해 분석하면, ‘보통’ 수준(약 47%) 혹은 ‘낮은 편임’(‘매우 낮음’ 포함, 약 49%)이 높게 나타났으며, ‘높은 편’으로 인식한 비율은 약 3% 수준이다. 즉, 표본 노인의 주관적 경제 수준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언급한 「사회조사 2017」의 60세 이상의 소득만족도 조사 및 「2016 고령화연구패널」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분포와 유사한 모습이다.

〈표 3〉 주관적 경제 수준에 대한 기술통계

	n	Percent	Mean	Std. Dev.
매우 낮음	1,100	10.53	2.44	0.73
낮은 편임	4,010	38.37		
그저 그러함	4,976	47.61		
높은 편임	357	3.42		
매우 높음	8	0.08		
전체	10,451	100.00		

〈표 4〉는 객관적 경제가치의 유형에 따른 평균값을 제시한 것이다. 경제적 가치의 유형별 평균은 소득의 경우 ‘가구총소득(약 2,115만원)»본인총소득(약

910만원)본인근로소득(약 98만원)'의 모습이고, 자산은 본인과 가구 단위 모두에서 '부동산자산>금융자산>부채'의 순이다. 순자산은 가구 순자산이 본인 순자산보다 1.78배 크다. 본인을 기준으로할 때 '순자산(약 1억1,075만원)>부동산자산(약 1억422만원)>금융자산(약 1,580만원)>부채(약 1,087만원)>총소득(약 910만원)>근로소득(약 98만원)'의 모습이며, 가구 단위에서는 '순자산(약 1억9,750만원)>부동산자산(약 1억8,449만원)>금융자산(약 2,923만원)>총소득(약 2,115만원)>부채(약 2,072만원)'의 순이다. 노인의 경제활동참여가 약 32% 수준이므로 근로소득이 낮게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모습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자산의 소유 양태인 '순자산>실물자산>금융자산>부채'와 유사하다.

〈표 4〉 경제적 가치의 유형별 평균액 단위(만원)

	n	Mean	Std. Dev.	Min	Max
본인근로소득	10,451	98.33	511.23	0	36,000
본인총소득	10,451	910.45	1,158.55	0	38,900
가구총소득	10,429	2,115.03	2,522.70	0	152,116
본인부동산자산	10,446	10,422.47	25,274.07	0	950,000
본인금융자산	10,440	1,580.55	5,147.22	0	200,000
본인부채	10,444	1,087.44	7,264.88	0	500,000
가구부동산자산	10,443	18,449.26	34,358.50	0	950,000
가구금융자산	10,415	2,923.87	7,934.83	0	200,100
가구부채	10,419	2,072.60	9,270.05	0	520,000
본인순자산	10,432	11,075.98	25,368.83	-249,950	942,950
가구순자산	10,385	19,750.30	35,405.39	-249,950	940,950

## 2. 회귀분석

다음의 〈표 5〉는 노인의 주관적 경제 수준과 소득의 결정요인에 대한 결과값이다. 노인의 주관적 경제 수준은 사회경제적 배경에서는 성별(0.109), 교육수준(0.138), 배우자유무(0.146), 경제활동유무(0.100), 거주지역(0.117)과 유의미한 양의 효과(<.001)를 갖고 있다. 소득은 전반적으로 사회경제적 배경에 영향을 받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동부에 거주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할수록 증가하였다. 본인과 연관된 소득은 여성일수록 감소하는 반면에, 가구 소득은 증가하며, 유배우자일수록 본인 총소득은 감소하지만, 가구 총

소득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표 5〉 노인의 경제적 가치와 결정요인

	주관적경제	본인근로소득	본인총소득	가구총소득	본인부동산	본인금융
성별	0.109***	-0.705***	-0.710***	0.078***	0.151**	-0.176***
연령	0.006	-0.414***	-0.059***	-0.069***	-0.031	-0.149***
교육수준	0.138***	0.064**	0.170***	0.175***	0.276***	0.369***
배우자유무	0.146***	-0.02	-0.552***	0.224***	0.695***	0.161**
경제활동유무	0.100***	0.382***	0.528***	0.122***	0.167***	0.302***
거주지역	0.117***	-0.230***	-0.073***	-0.156***	0.021	0.021
상수	1.639***	7.798***	7.521***	7.017***	7.723***	5.646***
n	10,451	1,484	10,432	10,428	6,060	7,846
r <sup>2</sup>	0.071	0.362	0.264	0.153	0.146	0.114
Adj r <sup>2</sup>	0.071	0.359	0.264	0.153	0.145	0.114
F	133.68***	139.45***	625.42***	314.31***	172.19***	168.61***
vif	1.25	1.25	1.26	1.25	1.39	1.27
	본인부채	가구부동산	가구금융	가구부채	본인순자산	가구순자산
성별	0.088	0.228***	0.121**	0.114	-0.030***	0.016***
연령	-0.045	0.027	-0.096***	0.026	-0.001	0.001
교육수준	0.213***	0.266***	0.304***	0.231***	0.017***	0.026***
배우자유무	0.166	0.652***	0.696***	0.004	-0.010***	0.029***
경제활동유무	0.018	0.132***	0.123**	-0.077	0.015***	0.015***
거주지역	-0.230*	0.003	-0.129**	-0.102	-0.001	-0.004
상수	7.426***	7.720***	5.843***	7.363***	12.488***	12.402***
n	1,844	9,166	8,888	3,102	10,431	10,383
r <sup>2</sup>	0.047	0.112	0.123	0.040	0.127	0.107
Adj r <sup>2</sup>	0.044	0.111	0.122	0.038	0.126	0.106
F	15.07***	192.34***	207.51***	21.34***	251.95***	206.16***
vif	1.29	1.24	1.26	1.20	1.25	1.25

\*p< .05, \*\*p< .01, \*\*\*p< .001

‘주’ 1: 가변수에 대한 준거범주는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참고할 것

‘주’ 2: 가중치 적용함

다음에서는 자산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분석된 모든 자산 관련 종속변수에 교육수준은 유의미한 양의 효과(<.001)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자산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많다는 것이다. 대체로 본인 부동산자산과 가구 부동산자산, 본인 부채와 가구 부채는 유의미한 변수가 비슷하다. 즉, 부동산자산의 경우 여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배우자일수록 많다. 다만, 가구

부동산은 연령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의 경우에는 교육 수준이 높으며, 동부에 거주할수록 본인과 가구의 부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구 부채의 경우에는 여성일수록 많게 나타났다. 순자산의 경우에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할수록 본인 및 가구의 순자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인 순자산의 경우 무배우자일수록(-0.010), 가구 순자산은 유배우자일수록(0.029) 순자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순자산은 남성일수록(-0.030), 교육수준이 높고(0.017), 무배우자일수록(-0.010), 경제활동 참여일수록(0.015) 순자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자산의 종류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력 있는 변수는 ‘차별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3. 상호작용분석:

상호작용분석은 성별, 연령, 교육 수준 변수를 이용한다. 먼저, 성별과 교육 수준 변수의 경제 수준에 따른 상호작용분석을 <표 6>을 통해 분석한다. 주관적 경제에는 ‘여성\*무학’ 상호작용변수에서 유의미한 음의 효과(-0.08)가 나타났다. 여성저학력노인이 남성고학력노인에 비하여 주관적 경제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종속변수가 가구 총소득, 본인 금융자산, 본인 부채, 가구 부채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인 근로소득은 ‘여성\*초등학교’(-0.668)와 ‘여성\*고등학교’(-1.415) 상호작용변수에서 음의 효과가 있으며, 특히 ‘여자\*고등학교’ 변수의 계수(-1.415)가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남성고학력노인에 비해 여성고학력노인의 근로소득이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본인 총소득의 경우 모든 상호작용항에서 유의미한 양의 효과(<.001)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의 여성노인이 남성고학력노인보다 본인 총소득이 낮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교육수준 뿐만 아니라 성별이 소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하며, 과거의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에 포함되는 경제활동참여가 남성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인 부동산의 경우 ‘여자\*초등학교’(0.335), ‘여성\*중학교’(0.257) 상호작용변수에서만 유의미한 양의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여성노인의 일부 집단에서 남성고학력노인보다 본인 부동산을 많음을 의미한다.<sup>10)</sup> 순자산 측면

10) 이러한 점은 배우자유무, 노인 부부 사이의 자산 소유 정도와 비율, 가구원 구성과 수 등



에서는 여성고학력노인이 남성고학력노인에 비해 본인 순자산은 유의미한 음의 효과(-0.011, -0.011, -0.032)이며, 가구 순자산은 유의미한 양의 효과(0.016, 0.032)가 나타났다. 즉 여성고학력노인이 남성고학력노인에 비해 본인의 순자산은 적었지만, 가구 순자산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노인의 경제적 가치와 상호작용분석\_성별\*교육수준

	주관적경제	본인근로소득	본인총소득	가구총소득	본인부동산	본인금융
성별	0.131***	-0.514***	-0.486***	0.089*	0.009	-0.14
연령	0.006	-0.430***	-0.075***	-0.075***	-0.038*	-0.160***
교육수준	0.157***	0.174***	0.284***	0.208***	0.314***	0.417***
배우자유무	0.144***	0.028	-0.521***	0.231***	0.683***	0.157**
경제활동유무	0.101***	0.379***	0.525***	0.125***	0.176***	0.304***
거주지역	0.115***	-0.254***	-0.090***	-0.164***	0.013	0.009
여성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무학	0.057	-0.181	-0.062	-0.041	-0.038	0.098
초졸이하	-0.031	-0.039	-0.199***	-0.124***	-0.300***	-0.247**
중졸이하	-0.097**	-0.374***	-0.309***	-0.238***	-0.426***	-0.334***
고졸이하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여성*무학	-0.085*	0.009	-0.179***	-0.063	0.053	-0.233
여성*초등학교	0.015	-0.668***	-0.357***	-0.028	0.335**	0.031
여성*중학교	0.037	-0.306	-0.383***	0.051	0.257*	0.087
여성*고등학교	-0.023	-1.415**	-0.492***	0.069	0.247	0.303
상수	1.579***	7.460***	7.116***	7.021***	7.959***	5.605***
n	10,451	1,484	10,432	10,428	6,060	7,846
r <sup>2</sup>	0.073	0.386	0.282	0.160	0.154	0.119
Adj r <sup>2</sup>	0.072	0.380	0.281	0.159	0.153	0.118
F	63.49***	70.94***	315.44***	152.91***	84.84***	81.43***
vif	2.79	2.59	2.79	2.79	2.40	2.79
	본인부채	가구부동산	가구금융	가구부채	본인순자산	가구순자산
성별	0.059	0.164*	0.188*	0.096	-0.022***	0.011*
연령	-0.066	0.022	-0.108***	0.001	-0.003***	-0.001
교육수준	0.281***	0.301***	0.364***	0.266***	0.027***	0.032***
배우자유무	0.199*	0.648***	0.708***	0.024	-0.008***	0.030***
경제활동유무	0.015	0.139***	0.129**	-0.07	0.015***	0.016***
거주지역	-0.240*	-0.003	-0.143**	-0.105	-0.003	-0.006*
여성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무학	-0.219	-0.01	-0.03	-0.195	-0.010**	-0.015**

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되며, 자세한 분석은 향후 과제로 남긴다.

초졸이하	-0.317*	-0.252***	-0.250**	-0.364**	-0.035***	-0.041***
중졸이하	-0.558***	-0.338***	-0.365***	-0.509***	-0.047***	-0.059***
고졸이하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여성*무학	0.055	-0.046	-0.218*	-0.173	-0.011*	-0.005
여성*초졸이하	0.002	0.223*	0.088	0.069	-0.005	0.005
여성*중졸이하	0.099	0.154	-0.039	0.241	-0.011*	0.016*
여성*고졸이하	-0.258	0.161	0.043	0.096	-0.032***	0.032**
상수	7.553***	7.834***	5.772***	7.565***	12.473***	12.417***
n	1,844	9,166	8,888	3,102	10,431	10,383
r <sup>2</sup>	0.059	0.117	0.128	0.054	0.153	0.131
Adj r <sup>2</sup>	0.053	0.116	0.127	0.050	0.152	0.130
F	8.86***	93.16***	100.04***	13.50***	144.51***	119.77***
vif	2.59	2.79	2.84	3.02	2.80	2.79

\*p< .05, \*\*p< .01, \*\*\*p< .001

‘주’ 1: 가중치 적용함

‘주’ 2: (omitted)는 공선성으로 측정치가 생략된 것임. 공선성으로 변수가 생략되었지만, 다중공선성 지수인 vif가 2수준이고, 해당 변수는 통제변수로 사용되었으며, 관심변수에서는 공선관계가 나타나지 않음.

〈표 7〉은 성별과 연령 변수를 이용한 상호작용분석 결과이다. 주관적 경제의 경우 ‘여성\*80세이상’의 상호작용변수에서 유의미한 양의 효과(0.124)가 나타났다. 최고령여성노인이 주관적 경제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이들 집단에서 주관적 경제 수준과 객관적 경제 수준이 탈동조화됨을 보여준다. 종속변수가 본인 부동산자산, 본인 금융자산, 본인 부채, 가구 부동산자산, 가구 금융자산인 경우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인 총소득의 경우는 ‘여자\*70-74세’, ‘여자\*75-79세’, ‘여자\*80세이상’에서 유의미한 양의 효과(0.347, 0.544, 0.381)이며 가구 총소득의 경우에서도 동일한 결과(0.090, 0.176, 0.324)가 나타났다. 이것은 본인과 가구의 총소득은 여성노인이 저연령남성노인보다 높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된 후속연구로 가구원의 구성 및 소득원천에 따른 객관적 경제 수준을 추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가구 부채는 ‘여자\*80대이상’의 상호작용변수에서만 유의미한 양의 효과(0.481)가 나타났다. 즉, 고령여성노인이 저연령남성노인보다 부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순자산의 측면에서 분석하면, 본인 순자산과 가구 순자산의 ‘여성\*80대이상’의 상호작용변수에서 유의미한 양의 효과(0.012, 0.013)가 나타났다. 즉, 저연령남성노인보다는 최고령여성노인의 순자산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 노인의 경제적 가치와 상호작용분석\_성별\*연령

	주관적경제	본인근로소득	본인총소득	가구총소득	본인부동산	본인금융
성별	0.066*	-0.756***	-0.976***	-0.036	0.234***	-0.132
연령	-0.012	-0.497***	-0.120***	-0.121***	-0.008	-0.106**
교육수준	0.138***	0.063**	0.171***	0.174***	0.276***	0.369***
배우자유무	0.158***	-0.007	-0.514***	0.257***	0.683***	0.148**
경제활동유무	0.099***	0.383***	0.517***	0.119***	0.170***	0.305***
거주지역	0.118***	-0.231***	-0.072***	-0.154***	0.019	0.02
여성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70-74세	-0.022	0.039	-0.169***	-0.095***	0.025	-0.086
75-79세	-0.049	0.011	-0.260***	-0.135***	0.05	-0.074
80세이상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여성*70-74	0.045	-0.006	0.347***	0.090*	-0.099	0.002
여성*75-79	0.051	0.154	0.544***	0.176***	-0.139	-0.07
여성*80이상	0.124**	0.600**	0.381***	0.324***	-0.182	-0.204
상수	1.726***	7.967***	7.982***	7.272***	7.588***	5.563***
n	10,451	1,484	10,432	10,428	6,060	7,846
r <sup>2</sup>	0.073	0.368	0.276	0.165	0.146	0.115
Adj r <sup>2</sup>	0.073	0.364	0.276	0.164	0.145	0.114
F	75.22***	78.01***	361.63***	187.41***	94.34***	92.33***
vif	2.64	2.56	2.63	2.63	2.26	2.60
	본인부채	가구부동산	가구금융	가구부채	본인순자산	가구순자산
성별	0.013	0.221***	0.089	0.063	-0.032***	0.015***
연령	-0.031	0.005	-0.125***	-0.032	-0.004**	-0.001
교육수준	0.211***	0.265***	0.302***	0.230***	0.017***	0.025***
배우자유무	0.175	0.664***	0.717***	0.06	-0.009***	0.030***
경제활동유무	0.011	0.133***	0.125**	-0.083	0.015***	0.015***
거주지역	-0.221*	0.004	-0.127**	-0.105	-0.001	-0.004
여성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70-74세	-0.086	-0.016	-0.046	-0.038	0.002	-0.002
75-79세	-0.302*	0.005	-0.082	-0.194	0.007*	-0.001
80세이상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여성*70-74	-0.008	-0.016	-0.02	-0.159	0.001	-0.001
여성*75-79	0.267	-0.059	0.028	0.203	-0.001	-0.005
여성*80이상	0.264	0.145	0.194	0.481**	0.012*	0.013*
상수	7.545***	7.766***	5.950***	7.539***	12.493***	12.407***
n	1,844	9,166	8,888	3,102	10,431	10,383
r <sup>2</sup>	0.052	0.113	0.125	0.051	0.127	0.108
Adj r <sup>2</sup>	0.047	0.112	0.124	0.048	0.127	0.107
F	9.18***	106.04***	114.84***	15.10***	138.26***	114.44***
vif	1.97	2.52	2.62	2.31	2.64	2.63

\*p< .05, \*\*p< .01, \*\*\*p< .001

‘주’: 〈표 6〉의 주와 동일함

〈표 8〉은 연령과 교육수준 변수를 이용한 상호작용분석 결과이다. 주관적 경제의 경우 '70-74세\*초등학교'와 '80세이상\*무학'의 상호작용변수에서 유의미한 음의 효과(-0.126, -0.171)가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의 상호작용변수에서 연령 변수는 차별성이 없으나, 교육 수준과 주관적 경제 수준에는 상관성이 나타났다. 종속변수가 본인 부동산, 본인 부채, 가구 부동산, 가구 부채의 경우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인 총소득의 경우에는 '70-74세\*무학', '70-74세\*초등학교', '70-74세\*고등학교', '75-79세\*무학', '75-79세\*초등학교', '75-79세\*중학교', '75-79세\*고등학교', '80세이상\*고등학교'의 상호작용변수에서 유의미한 음의 효과 나타났다. 이들 집단은 저연령고학력노인에 비해서 본인 총소득이 낮으며, 특히 '75-79세'의 경우에는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교육 수준에서 본인 총소득이 낮게 나타났다. 가구 총소득의 경우 '75-79세\*중학교', '75-79세\*고등학교', '80세이상\*초등학교', '80세이상\*중학교', '80세이상\*고등학교'에서 유의미한 음의 효과(-0.136, -0.252, -0.188, -0.201, -0.384)가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75-79세'에서는 본인 총소득에의 영향력이, '80세이상'은 가구 총소득에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이다. 본인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70-74\*무학', '70-74\*초등학교', '70-74\*고등학교', '75-79\*고등학교'에서 유의미한 음의 효과(-0.477, -0.433, -0.639, -0.464)가 나타났다. 즉, 본인 금융자산의 경우는 '65-69세'와 '70-74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금융자산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순자산 측면을 분석하면, 본인 순자산의 경우 '70-74세\*고등학교', '75-79세\*고등학교', '80세이상\*고등학교'에서 유의미한 음의 효과(-0.022, -0.028, -0.033)가 나타났다. 가구 순자산도 본인 순자산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이들 집단은 저연령고학력노인보다 본인 및 가구의 순자산이 적으며, 연령 보다는 교육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표 8〉 노인의 경제적 가치와 상호작용분석\_연령\*교육수준

	주관적경제	본인근로소득	본인총소득	가구총소득	본인부동산	본인금융	본인부채	가구부동산	가구금융	가구부채	본인순자산	가구순자산
성별	0.106***	-0.695***	-0.715***	0.072***	0.145**	-0.186***	0.04	0.224***	0.115**	0.093	-0.031***	0.016***
연령	0.046***	-0.401***	-0.043**	-0.026	-0.081*	-0.122**	0.014	0.028	-0.026	0.05	-0.003*	0.001
교육수준	0.156***	0.103**	0.278***	0.239***	0.345***	0.506***	0.297***	0.315***	0.427***	0.289***	0.028***	0.040***
배우자유무	0.148***	-0.011	-0.528***	0.245***	0.699***	0.165***	0.192*	0.664***	0.723***	0.067	-0.008***	0.031***
경제활동유무	0.101***	0.390***	0.534***	0.126***	0.170***	0.299***	-0.009	0.136***	0.129**	-0.087	0.015***	0.015***
거주지역	0.114***	-0.246***	-0.085***	-0.166***	0.012	0.016	-0.229*	-0.006	-0.145**	-0.103	-0.003	-0.006*
70-74세	0.01	-0.184	0.058	-0.137***	0.019	0.259*	-0.21	-0.131	-0.053	-0.414**	-0.001	-0.007
75-79세	-0.079*	-0.164	0	-0.161***	0.067	0.099	-0.189	-0.121	-0.205**	-0.242	0	-0.010*
80세이상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무학	0.093**	-0.143	-0.117**	-0.062	-0.106	0.06	-0.196	-0.108	-0.12	-0.380**	-0.024***	-0.029***
초졸이하	0.065	-0.235*	-0.310***	-0.147***	-0.253**	-0.230*	-0.357*	-0.177*	-0.228*	-0.426***	-0.043***	-0.055***
중졸이하	-0.02	-0.436***	-0.435***	-0.236***	-0.479***	-0.445***	-0.522***	-0.334***	-0.515***	-0.518***	-0.058***	-0.072***
고졸이하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70-74*무학	-0.095	-0.022	-0.169**	0.015	0.127	-0.477**	0.228	0.153	-0.166	0.327	0.007	0.008
70-74*초졸이하	-0.126*	0.087	-0.224**	-0.006	-0.053	-0.433*	0.085	0.025	-0.1	0.194	0	0.007
70-74*중졸이하	-0.097	0.412*	-0.095	-0.051	0.005	-0.209	-0.018	0.053	-0.002	0.163	0.001	-0.004

70-74*고졸이하	0.103	0.393	-0.179*	0.017	-0.059	-0.639**	-0.174	0.106	-0.326	0.112	-0.022**	-0.016
75-79*무학	-0.081	0.009	-0.127*	-0.082	0.004	-0.139	-0.261	0.029	-0.009	-0.073	0.005	0.007
75-79*초졸이하	-0.119	0.151	-0.168*	-0.042	0.163	-0.292	0.367	0.039	-0.138	0.086	0.006	0.004
75-79*중졸이하	-0.04	0.011	-0.178*	-0.136*	0.217	-0.318	-0.278	0.062	-0.094	-0.188	0.006	-0.003
75-79*3고졸이하	0.001	-0.023	-0.491***	-0.252**	-0.082	-0.464*	-0.527	0.086	-0.303	-0.327	-0.028**	-0.048***
80이상*무학	-0.171**	0.004	0.002	-0.104	0.22	-0.115	-0.228	0.068	-0.241	-0.068	0.009	0.005
80이상*초졸이하	-0.119	-0.125	0.021	-0.188*	0.144	0.051	-0.897	-0.029	-0.382	-0.14	0.004	0.002
80이상*중졸이하	-0.105	0.389	-0.038	-0.201**	0.156	-0.011	0.202	-0.028	-0.226	0.138	-0.009	-0.006
80이상*고졸이하	-0.118	-0.212	-0.401***	-0.384***	-0.054	-0.215	0.228	-0.307	-0.723***	-0.299	-0.033***	-0.057***
상수	1.532***	7.887***	7.426***	6.952***	7.781***	5.390***	7.487***	7.758***	5.677***	7.572***	12.489***	12.400***
n	10,451	1,484	10,432	10,428	6,060	7,846	1,844	9,166	8,888	3,102	10,431	10,383
r <sup>2</sup>	0.076	0.378	0.282	0.170	0.154	0.120	0.072	0.117	0.130	0.061	0.154	0.133
Adj r <sup>2</sup>	0.074	0.368	0.281	0.168	0.151	0.118	0.060	0.115	0.128	0.053	0.152	0.131
F	37.14***	38.61***	178.12***	92.53***	47.93***	46.42***	6.15***	52.79***	57.49***	8.63***	82.34***	69.17***
vif	2.93	2.30	2.93	2.92	3.02	2.94	3.29	2.93	2.94	2.92	2.93	2.92

\*p<.05, \*\*p<.01, \*\*\*p<.001

주: <표 6>의 주와 동일함

지금까지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의 상호작용항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9>와 같이 요약된다.

<표 9> 노인의 경제적 가치와 상호작용분석\_분석결과 요약

(기준: 남성, 65-69세, 전문대이상)

	주관적경제	본인근로소득	본인총소득	가구총소득	본인부동산	본인금융
성별*교육수준	△↓	○↓	○↓	×	○↑	×
성별*연령	△↑	△↑	○↑	○↑	×	×
연령*교육수준	△	△↑	○↓	△↓	×	△↓
	본인부채	가구부동산	가구금융	가구부채	본인순자산	가구순자산
성별*교육수준	×	△↑	△↓	×	○↓	○↑
성별*연령	×	×	×	△↑	△↑	△↑
연령*교육수준	×	×	△↓	×	△↓	△↓

\*주: 상호작용변수 중에서 50% 이상 유의미한 양의 효과는 ○↑, 음의 효과는 ○↓, 유의미한 상호작용항이 50% 미만인 양의 효과는 △↑, 음의 효과는 △↓, 유의미한 효과가 부재이면 ×임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주관적 및 객관적 경제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주관적 경제 수준은 낮은 편(매우 낮음 포함)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약 49%로 나타남에 따라 노인 스스로 느끼는 경제 수준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노인의 주관적 경제 수준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배경을 회귀분석 결과, 여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배우자이고, 경제활동참여일수록, 읍면부에 거주할수록 주관적 경제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노인의 객관적 경제 수준에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연령은 대체로 고연령일수록 객관적 경제 수준(소득, 자산)은 낮아지고, 교육수준은 모든 객관적 경제 수준의 유형에 유의미한 양의 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성별과 교육수준의 상호작용분석에서는 여성저학력노인이 남성고학

력노인에 비하여 주관적 경제수준이 낮았다. 남성고학력노인에 비해 여성고학력노인의 근로소득이 매우 낮았으며, 모든 연령대의 여성노인이 남성고학력노인보다 본인 총소득이 낮게 나타났다. 여성노인의 일부 집단에서 남성고학력노인보다 본인 부동산을 많았으며, 여성고학력노인이 남성고학력노인에 비해 본인의 순자산은 적었지만, 가구 순자산은 많았다.

셋째,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분석에서는 고령여성노인이 주관적 경제 수준이 높았다. 본인과 가구의 총소득은 여성노인이 저연령남성노인보다 높았으며, 고연령여성노인이 저연령남성노인보다 부채와 순자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령과 교육수준의 상호작용분석에서는 주관적 경제 수준의 상호작용변수에서 연령 변수는 차별성이 없으나, 교육수준과 주관적 경제 수준에서는 인과성이 나타났다. 저연령고학력노인은 비교집단보다 본인 총소득이 많으며, 특히 75-79세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에서 본인 총소득이 낮게 나타나며, 75-79세에서는 본인 총소득에의 영향력이, 80세 이상은 가구 총소득에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금융자산은 65-69세와 70-74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금융자산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순자산의 경우 고연령저학력노인은 저연령고학력노인보다 본인 및 가구의 순자산이 적으며, 연령보다는 교육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노인의 주관적 수준 및 객관적 경제 수준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구적 요인은 차별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스스로 인식하는 경제 수준이 매우 부정적이다. 주관적 경제 수준이 낮다는 것은 객관적 경제 수준, 특히 본인의 소득(정확히는 가처분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원천에서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의 공적이전소득 및 높은 비율의 근로소득으로 요약된다. 공적이전소득의 경우, OECD 국가의 소득원천에서 평균 공적이전소득의 비율은 전체 소득의 58.6%인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16.3% 수준이다(OECD, 2014). 우리나라 노인은 낮은 가처분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지만, 노동시장에서의 현실은 비정규·비숙련·저임금의 고용행태로 인하여 가처분소득의 증가에 한계가 있다. 또한 노년기는 노동시장



에서 일탈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노동시장 재진입을 통한 가처분소득 증가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가처분소득 증가를 통한 주관적 경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은 무엇이 있는가. 우선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주관적 경제 수준 향상의 선결조건이자 필수조건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공적이전소득과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적이전소득의 핵심 축은 공적 연금이다. 이때 연금 적용의 포괄성 확대, 기여중심의 설계, 급여의 충분성 확보가 반영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충성의 원리가 작동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통한 빈곤 노인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노인 경제활동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노인 노동시장 정책에서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연령에 구속되지 않는 고용시장 구축 및 노동생산성에 비례하는 임금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정책 집행의 초점을 노인 하위 소득계층으로 선택적 범위를 설정하고 이들 집단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생존을 위한 포괄적 정책 접근이 함께하는 것이다.

둘째, 노인의 경제 수준은 개별 집단에 따른 '차별성(differentiation)'이 존재한다. 회귀분석결과, 주관적 경제 수준과 소득에 대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은 기존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지만, 자산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는 교육 수준 이외의 영향력에서는 자산의 유형에 따른 차별성이 나타났다. 상호작용분석 결과에서도, 개별 상호작용 집단에 따른 차별성이 확인되었다. 즉, 여성저학력노인이 남성고학력노인에 비해 주관적 경제 수준, 근로소득, 본인 총소득, 본인 순자산은 낮게 나타났지만, 일부 여성고학력노인은 남성고학력노인보다 본인 부동산이나 가구 순자산은 많았다. 또한 저연령남성노인보다 고연령여성노인의 순자산이 많았다. 이러한 노인의 성별, 연령, 교육 수준에 따른 경제적 수준의 차별성은 두 가지의 정책적 함의를 준다. 첫째, 현실적인 노인의 경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처분소득 중심의 연구 및 정책수립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산도 중요한 고려 사항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노인 빈곤 집단을 추정 및 설정할 때 소득 빈곤과 자산 빈곤에의 모두 해당(교집합) 여부로 빈곤 노인 집단을 범주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이렇게 전체 노인 집단이 아닌 선택적 노인 집단으로 표집 및 범주화하는 것은 행정비용의 과다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현재 노인의 경제적 가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의 자료를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하여 일원화된 데이터를 구축하여 활용하면 일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노인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정책수립에 성별, 연령, 교육 수준을 세심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한 소득과 자산이 반영된 경제 수준에서의 취약 집단은 주로 여성노인, 고연령노인, 저학력노인이다. 특히 분석결과에서 교육수준이 경제적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아무튼, 연구결과에서 이들 세 가지 유형의 취약 집단은 서로 조응하여 영향을 주고받음을 확인하였다. 소득과 자산의 경제 수준이 낮 으면서도 2~3개의 취약 특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집단은 '복합적 취약 집단 (complexed vulnerable group)'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렇게 복합적 취약 집단으로 판단되는 노인 집단은 일자리 및 복지서비스 제공 기회를 포용적으로 늘려야 할 것이다.

셋째, 향후 성별, 연령, 교육 수준에 따른 경제 수준(특히, 객관적 경제 수준) 격차가 유지 및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인의 경제 수준에서는 '지속성 (sustainability)'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노년기는 소득을 통한 새로운 경제적 가치의 유입보다는 자산의 구축단계에 머물 확률이 높다는 점과 매튜 효과 (Matthew effect)로 인하여 경제적 수준의 격차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데이비스(Davies, 2008)의 경제 위기시의 유동성 제공이나 권력 분배의 기능을 갖는다는 부의 기능이나 쉐라덴(Sherraden, 1991)의 자산 효과와 연결될 때 노인의 삶의 격차는 확대재생산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연구결과에서 경제적 가치의 구성요소별 소유 순서가 '순자산>부동산자산>부채>총소득'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습은 노인뿐만 아니라 OECD 국가의 40대 이후의 연령대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문제는 우리나라처럼 대부분의 자산이 현금화가 원활하지 않은 부동산 형태로 묶여있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같은 소득보장 성격의 사회안전망이 약한 사회에서는 생애과정을 거쳐 축적된 소득 및 재산 격차가 노년기에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넘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황선재·김정식, 2013). 최근 들어 활성화되고 있는 농지연금

나 주택연금과 같은 자산기반복지(asset based welfare)도 노인 집단 내부의 경제적 격차 유지 또는 확대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제적 가치의 소유 불균등에 따른 기회의 박탈 문제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결국, 위와 같은 연구의 함의를 통해 노인의 경제적 수준의 특징은 ‘차별성’과 ‘지속성’으로 요약된다.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 수준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격차, 높은 상대빈곤율, 노동시장에서의 취약성, 소득과 자산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향후 지속할 가능성이 크므로 현재 그리고 미래 노인 세대의 안정적인 경제 상태를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횡단면 자료를 이용으로 인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 분석이 부재하다. 소득과 달리 자산은 축적의 개념이 배태된 저장(stock)의 특성이 있다는 점,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가 큰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은퇴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험적이고 면밀한 종단 분석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산의 소유 주체 및 가구 형태에 따른 소득 원천과 자산 규모에 대한 분석이 부재하다. 경제적 가치는 설문 대상 본인(노인) 소유, 본인과 배우자 소유, 가구주 소유, 가구 소유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가구 형태의 양태와 변화는 노인의 소득 원천과 경제적 가치의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들은 향후 과제로 남긴다.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강시온·한창근. (2017). 노인의 자산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7(2): 415-430.
- 곽효문. (2002). 노인의 여가생활과 문화복지적 접근. 「노인복지연구」, 17: 27-49.
- 권오균·허준수. (2013). “저소득 독거노인의 자살생각 인과모형에 관한 연구: 자아존중감, 우울감, 절망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1(1): 65-93.

- 김복순. (2014).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고용구조 및 소득. 「노동리뷰」, 21-35, 한국노동연구원.
- 김수영·박병현. (2018). 한국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 유형과 사회보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45(4): 35-64.
- 김순미. (2018). 노인가구의 소득빈곤과 다차원빈곤에 관한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6(2): 175-193.
- 김연정. (1998). 은퇴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의 소득, 지출 및 자산의 비교분석.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125(7): 57-67.
- 김영순·윤희정·권진희·문효정·이성국. (2002). 농촌독거노인들의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 「한국농촌의학회지」, 27집 1호. pp.65-78.
- 김자영·한창근. (2015). 노인가구의 자산수준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계망의 매개효과 검증. 「사회복지정책」, 42(1): 55-79.
- 김진구. (2012). 소득계층에 따른 노인들의 건강불평등 측정: EQ-5D척도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2(3): 759-776.
- 김진영·송이은. (2014). 건강한 저소득층 노인의 주요 건강보호 요인. 「보건과 사회과학」, 36: 103-131.
- 김혜연. (2017). 기초연금 도입이 성별 빈곤 및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효과. 「비판사회정책」, 54: 120-159.
- 박경숙·김미선. (2016). 노인 가구형태의 변화가 노인빈곤을 변화에 미친 영향. 「한국사회학」, 50(1): 221-253.
- 박영란·박경순. (2013). 한국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복지: 연구의 동향과 향후 과제. 「노인복지연구」, 60: 323-352.
- 심영. (2010). 가구유형별 노인가구의 자산 차이 분석. 「소비문화연구」, 13(4): 41-66.
- 석재은·임정기. (2007).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소득수준 격차 및 소득원 차이와 결정요인. 「한국노년학」, 27(0): 1-22.
- 손병돈. (2009). 노인 소득의 불평등 추이와 불평등 요인분해. 「한국노년학」, 29(4): 1445-1461.
- 신경림·김정선·김진영. (2005). 저소득 여성노인과 일반여성노인의 주관적 건강

- 평가, 건강상태 및 건강증진행위 비교. 「인간호학회지」, 17(5): 732-742.
- 신용석·원도연·노재현. (2017).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자선이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7(3): 687-705.
- 신종각·안준기·김경희·김은영·권윤섭. (2017). 「2016 고령화연구패널(KLoSA) 기초분석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 윤석명. (2013). 노인 빈곤 및 소득분포 실태와 소득지원 방향. 「보건복지포럼」, 7-17.
- 윤종인. (2018). 우리나라 소득분배의 연령효과와 코호트효과에 대한 연구”, 「경제학연구」, 66(1): 81-114.
- 이래혁·이재경. (2018). 저소득 여성 독거노인의 물질적 어려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3(4): 29-53.
- 이상봉. (2011). 경제불평등 구조분석: 계급, 지역 및 연령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5(2): 25-57.
- \_\_\_\_\_. (2018). 중·고령자의 빈곤 특성과 사회인구학적 결정요인. 「사회과학연구」, 25(1): 79-97.
- \_\_\_\_\_. (2019). 노인의 경제 수준과 사회적지지-도시와 농촌 비교를 중심으로. 「OUGHTOPIA」, 34(1): 10-126.
- 이숙현·한창근. (2017). 노인의 자선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사회복지정책」, 44(3): 99-124.
- 이용재. (2016). 노인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분석. 「한국컨텐츠학회논문지」, 16(5): 591-600.
- 이원진. (2012). 노인 소득불평등 추이의 영향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4(4): 163-188.
- 이현기. (2010). 노인자원봉사활동과 사회자본: 사회자본 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0: 263-289.
- 이현주·엄명용. (2014). 저소득 우울 여성 독거노인 대상 긍정심리 해결중심 통합 집단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66(3): 101-131.
- 정경희. (2013). 노인의 경제적 생활실태와 노후생활. 「국민연금연구원 발표논문

- 문집」, 40: 185-219.
- \_\_\_\_\_. (2015). 노인의 특성변화와 생활현황. 「보건복지포럼」, 6-16.
- 정현선·김옥수. (2013). 노인 만성질환자의 불안, 우울, 건강행위에 관한연구. 「Health&Nursing」, 25(2): 35-46.
- 정해식·김수완·안상훈. (2014). 다차원적 불평등의 세대간 특성-현 노인세대, 베이비붐 세대, 이후 세대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63: 337-369.
- 최선미. (2017). 노인의 네트워크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소득수준과 접근성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3(3): 259-294.
- 황선재·김정식. (2013). 노년기 소득불평등 분해 분석. 「한국사회학」, 47(4): 201-226.
- 허성희·정명희. (2017).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저소득 노인과 일반노인의 비교.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4(1): 87-114.
- 홍민기·강신욱·성재민·이상호·장지연·김재광·이지은. (2015). 「노동패널연구 (I)」, 한국노동연구원.
- 홍백의. (2005).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4): 275-290.
- 통계청. (2014).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4.11.14.일자.
- \_\_\_\_\_. (2017). 「2017 사회조사」, 보도자료 2017.11.07.일자.
- \_\_\_\_\_. (2018).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8.12.20.일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정책보고서 2014-61.
- \_\_\_\_\_. (2016). 「한국의 노인빈곤실태-심층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정책보고서 2016-60.

〈국외문헌〉

- Breeze. E., D. A. Jones, P. Wilkinson & A. E. Fletcher. (2004). Association for quality of life in old age in Britain socioeconomic position: baseline data from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ournal of Epidemiology & Community Health*, 58(8): 667-673.
- Crystal, Stephen, Dennis Shea, & Shreeram Krishnaswami. (1992). Educational attainment, occupational history, and stratification : Determinants of later-life economic outcomes. *Journal of Gerontology*, 47(5): S213-S221.

- Davies, James B.. (eds.). (2008). *Personal wealth from a global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 Lee, JooMi, Lee, W.J., Kim, H.C., Choi, W., Lee, J., Sung, K., Chu, S.H., Park, Y.R. & Youm, Y.. (2014). The Korean social life, health and aging project-health examination cohort. *Epidemiology and health*, 36.
- Modigliani, Franco. (1986). Life cycle, individual Thrift, and the wealth of nation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6(3): 297-313.
- OECD. (2014, 2015). *Pensions at a Glance*, OECD: Paris.
- Sherraden, Michael. (1991). *Assets and the poor: A new American welfare policy*. New York: M.E. Sharpe.
- Wolff, N. Edward. (1998). Recent trends in the size distribution of household wealth.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2(3): 131-150.
- Youm, Y., Laumann, E. O., Ferraro, K. F., Waite, L. J., Kim, H. C., Park, Y. R., & Lee, J. A.. (2014). Social network properties and self-rated health in later life: comparisons from the Korean social life, health, and aging project and the national social life, health and aging project. *BMC geriatrics*, 14(1): 102.



## Determinants of the Elderly's Economic Level: Focused on Sex, Age, Education Level

Sang Boong Lee  
Yonsei University, Korea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policy implication by analyzing determinants that affect the subjective and objective economic levels of the elderly. This study used "National Survey of Older Persons" (201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interaction analysis were conducted on the effect of gender, age, and education level on subjective and objective economic level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self - perceived economic status of the elderly is very negative. Second, the economic level of the elderly is 'differentiation' according to individual group. Third, 'sustainability' exists because of the possibility that the gender, age and educational background of the elderly will be maintained and expanded. Finally, through the implications of the above research,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s economic level are summarized as 'differentiation' and 'sustainability'.

[Key Words: Elderly, Income, Assets]

---

논문접수일: 2019년 6월 5일  
논문수정일: 2019년 11월 18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9일

제1저자(주저자): 이상봉(Sang Boong Lee)은 연세대학교 고령화사회를위한융복합연구센터에서 연구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경제 불평등, 노후소득보장, 사회안전망이다(zzangboong@gmail.com).